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령제한 상향법(RAISE THE AGE LAW) 발효 발표

10월 1일 자정부로 범죄를 저지른 16세를 성인 형사사법제도에서 없애고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에서 16세, 17세 수용을 금지하는 조항

지역 이해당사자들에게 필수 예산편성 지침, 계획 도구, 훈련 제공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FY 2018 Budget Legislation)에 포함된 법령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 가운데 중요한 성과 의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령제한 상향법(Raise the Age Law)이 이제 발효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을 통해 오늘 자정부터 범죄를 저지른 16세를 성인 형사사법제도에서 없애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연령대에 맞는 장소에 배치합니다. 비폭력 관련 범죄로 체포된 16세는 15세 이하와 같은 교화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6세는 형사 법원 청소년부(Youth Part)에서 청소년 범죄자로 처리되며 성인용 감옥 대신 청소년 구금 전문 시설에 배치됩니다. 해당 법은 2019년 10월 1일에 17세로 연장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후퇴할 때 뉴욕은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의 나이를 높임으로써 뉴욕은 유색인들에게 불균형하게 끼치는 부당함을 중지부 짝을 것이며 다시 한 번 우리가 국민을 위한 진보의 불빛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더욱 동등하고 더욱 공평한 사회를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와 워싱턴의 공화당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전과 가치를 위협하는 반면 뉴욕은 우리의 강력한 진보 어젠다로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세와 17세를 성인 형사사법제도에서 없애고 적절한 서비스와 대우를 받는 환경에 배치하도록 형사 책임의 연령을 올립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성인으로 대우하는 부당함을 끝낼 대의명분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재판 전에 구금된 사람들에게도 정당성과 공평함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색인들과 가난한 지역사회 사람들이 인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 법령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통과된 바 있으며,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 가운데 중요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해당 시행은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주 교정 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 SCOC),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 예산부(Division of the Budget)를 포함한 복수 기관 팀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 팀은 주 법원행정처(Stat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와도 면밀하게 작업했습니다. 지역 카운티에 계획 및 변제 지침을 제공하고 자본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직원 채용을 늘리고 훈련을 제공하며 지역 구금 시설용 규제를 최종화했습니다. 아동가족사무국(OCFS)은 구금 및 배치용 교육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협력했습니다.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법을 시행하기 위해 아동가족사무국(OCFS)과 주 교정 위원회(SCOC)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금 전문 시설의 구성, 인력 채용, 운영, 자격증 부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을 다루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예산편성지침 및 계획 도구 분배

Cuomo 주지사가 법에 서명한 이래 주 시행 팀은 주 전역에 정보, 지원, 지침을 분배했습니다. 해당 팀은 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카운티를 방문했으며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만나 정보 보호를 공유했고 카운티에서 청소년 배치 시스템을 위한 지역 옵션을 개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관들은 보호 관찰관을 훈련했고 카운티 행정책임자, 커미셔너, 사회복지 서비스 커미셔너, 변호사, 정신 건강 관리기관, 법 집행기관, 지방 검사, 판사, 분쟁해결 전문가, 공공 복지 공무원, 카운티를 대표하는 무역협회, 공공 복지 직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8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약속했으며 주 예산에 그 기금을 보장했습니다. 뉴욕주는 전체 지출이 2퍼센트 세금 한도 내에 유지되는 경우 비용의 100퍼센트를 카운티에 변제할 예정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카운티는 재정적 곤란을 증명하면 전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종합적인 청소년 교화, 보호 관찰,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금 한도 준수, 재정적 곤란, 변제용 지역 예산 계획 완성을 증명하기 위해 각 카운티에서 필요한 모든 서식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 8년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은 뉴욕주에서 8년 동안 해온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에 기반합니다. 교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기반 대안 시설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포율은 올해 22퍼센트 하락했습니다. 2010년 이래 16세, 17세 체포는 62퍼센트, 구금은 56퍼센트 내려갔고 청소년 배치는 절반 이상 내려갔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찰 인원수는 2013년 이래 36퍼센트 감소했으며 공개된 청소년 보호 관찰 사례는 올해 44퍼센트 떨어졌습니다.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법은 또한 작년에 발효된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는 특정 비폭력, 비성폭력 관련 범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10년 동안 깨끗한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기록이 봉인되는 조항입니다. 구금되었던 사람이 석방일로부터 10년 동안 체포되지 않는 경우 기록을 봉인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31일자 주 전역에서 총 549명의 기록이 봉인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와 파트너십을 맺은 청소년 사법 기관(Youth Justice Institute)도 설립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CJS)과 아동가족사무국(OCFS) 커미셔너가 공동으로 집행 위원회가 되어 감독합니다. 해당 기관은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주 형사사법제도에 연루된 아동, 청소년, 최대 24세 청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궁극적으로 감옥 의존을 줄이고 재범의 악순환을 깨도록 도울 예방 및 중재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할 것입니다.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OCF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은 어린이들을 성인과 같이 대우하고 성인 교정 시설에 노출시켜 발생한 문제에서 매우 필요했던 답입니다. 우리 거주지 치료 센터에서 청소년들은 사례 관리, 상담, 임상 의학적 정신 건강 서비스, 직업 관련 훈련 및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현장에서 청소년 재화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위해 설계된 치료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정감독부(DOCCS)의 **Anthony J. Annucci**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뉴욕주 형사 책임의 연령제한을 상향(Raise the Age)하고 주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주지사님의 비전에 기반합니다. 교정감독부(DOCCS)는 현재 두 개의 청소년 범죄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청소년을 알맞게 수용할 세 번째 시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증거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은 지역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의 **Michael C. Green** 수석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책임의 연령제한을 18세로 올리는 것은 뉴욕주에서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 제도, 교도소, 감옥에 노출되지 않고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우수 사례를 포용하고 조기 검사,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호 관찰부를 포함한 지역 협력 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지속하여 이 변화를 가능한 한 매끄럽게 진행하고 모든 청소년이 잠재력을 깨달을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교정 위원회(Commission of Correction) **Allen Riley**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법이 작년에 채택된 이래 위원회는 협력 기관들, 이해 당사자들과 청년 구금 전문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새 시설들의 건설, 개조, 증명, 운영을 관리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아동가족사무국(OCFS)은 이러한 시설들에 자격증을 주기 시작했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대우 받도록 운영을 감독할 것입니다.”

Janet DiFiore 수석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이 획기적인 법률 준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새 청소년부(Youth Parts)를 만들고 인력을 고용했으며 특히 뉴욕시에서 가정 법원(Family Court) 소송 절차 능력을 확대하여 이제 법원에서는 청년들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무시간 후 체포된 청소년을 위해 법원 접근성을 확대하여 특별히 훈련된 형사 법원 ‘접근할 수 있는 치안 판사’가 즉시 구금 상태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령제한 상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정보를 주 전역에서 신중하게 추적하고 제공하는 새 사례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판사들과 비사법 직원들은 훈련을 잘 받았으며 준비되었습니다.”

주의 복수 기관 팀은 이 혁신적 법안이 주와 지방 정부에서 성공하도록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카운티 및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이 청소년이 나이와 성장에 맞는 환경에서 필요한 중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시민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연령제한 상향(Raise the Age) 정보: <https://www.ny.gov/programs/raise-age-0>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